

강단에 서서

행복, 스스로 연습하고 만드는 ‘셀프’

박재진

〈미술대학 강사〉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찾듯이 행복을 찾는다”고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행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잘 알고 있다. 행복은 인간이 잘 먹고 잘사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적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기쁨, 황홀함, 사랑과 같은 감정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행복의 원천은 ‘마음’에 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의 행동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에도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바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오직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마음을 다스려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좋은 소식들이 있다. 이제 마음의 세계는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각종 과학적 발견과 실험 결과가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에 따라 이제 행복도 주관적인 기분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행복은 약기 연주나 자전거 타기처럼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제 행복은 삶의 습관이며, 연습할수록 늘어나는 기술로 여겨진다.

사진예술에 있어서, 특히 사진 찍기의 작업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먼저 피사체에 대한 관심, 관찰, 간파의 단계를 차례로 거치게 된다. 대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치밀한 관찰, 그리고 명확한 간파를 통하여 피사체를 온전하게 이해한 이후에야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진 찍기를 통하여 우리는 주의력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여 감성훈련도 시

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진 찍기는 행복 찾기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깨어있는 정신은 단순히 관찰만 하여도 심리적 만족감을 상승시킨다. 그리고 집중된 감각적 인지는 고양된 즐거운 감정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 부드러운 황홀감은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미리 느끼게 되는 기쁨의 감정과 비슷하다. 우리는 불행을 조절할 수 있고 행복을 배울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외국어 공부처럼 행복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자. 그리고 행복의 규칙을 알고 닦기 위한 일체의 연습들을 자발적으로 실행해보자.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주어지지 아니나 내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이다. 행복은 셀프이다.

15sec “괜찮아, 잘 될거야”라는 멜로디

흔히 CM 송이라고 말하는 commercial song은 광고 방송용 노래로, 때로는 영상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음악이다. 프랑스의 프로젝트 그룹 Nouvelle Vague의 This is not a love song을 길가에서 들으면 MBC의 인기 시트콤이었던 〈소울메이트〉의 몇몇 도발적인 장면들이 생각나듯이, Cranberries의 Dreams가 카페에서 흘러나올 때 영화 〈중경삼림〉의 임청하가 생각나듯이, 명료한 선율은 광고 영상의 한 장면과 함께 시청자의 기억 속으로 파고든다.

대학 초년생 때만 겪을 줄 알았던 우울함은 2학년, 3학년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 강도가 심해졌는데, 한살, 한살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들 때문이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인간관계, 자꾸만 멀어지는 듯한 수업, 좋지 않은 학점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던 나에게 해결의 발미를 제공했던 것은 엉뚱하게도 TV에서 우연히 본 한 광고였다.

브라운관 속 윤은혜가 몇 번이고 불렀던 “괜찮아, 잘 될거야”라는 멜로디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후로도 쉽지 않은 고민이 고개를 들 때마다 하루 녹차를 마시면서 주문처럼 외었던 것 같다. 마법같은 주문,

모두 괜찮아 질거라고, 모든 것이 잘 될거라고, 윤은혜의 하루 녹차 CF는 ‘제로 칼로리 녹차’, ‘뱀에 좋은 녹차’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 미래에 대한 긍정을 팔았던 것이다.

바람, 아름다움, 좋은 기억을 노래하는 것은 마약 같은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괜히 그러한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잠시라도 잊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우울할 때마다 다시금 윤은혜의 하루 녹차 CF를 네이버에서 굳이 검색하여 찾아보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마약이 가끔 나쁜 것만은 아님을 깨닫는다. 사람

은 쉽지 않은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때로는 위안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이 마케팅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오늘도 한강에 운동하러 나간다. 집 앞 편의점에 들어가 어떤 녹차를 마시며 자전거를 탈까 고민한다. 주로 고민하는 상대는 물론 안마신다는 전지현이 마신다는 17차. 승부는 쉽게 나지 않는다. 하지만 약간 우울한 날, 혹은 위로가 필요한 날은 주저없이 하루 녹차를 선택한다. 윤은혜가 옆에서 하루 녹차를 건네며 말해줄 것 같다. “괜찮아, 잘 될거야”. 그래, 가끔은 마약도 괜찮다.

박중윤 〈언론정보학부 광고PR학회회원〉

세시봉



정현석 섹션장

삼성전자는 지난 달 말 제주도에서 열린 ‘삼성 4G포럼 2006’ 행사에서 초고속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시연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서 MP3음악과 일 100곡을 2.4초에, 800MB짜리 영화 한편을 5.6초에 전송받을 수 있는 ‘꿈의 초고속 무선통신시대’가 곧 열린다. 여대를 넘어 가면 얼마만한 크기의 액수인지 오히려 둔감해지는 소시민처럼 최고 1Gbps 라는 속도에 여러동절하던 필자는 영화하관 다운받는데 6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에야 비로소 감이 잡혔다.

한편 지난 1일 한 신문에는 한국인의 디

지털 조급증을 지적하는 기사가 실렸다. 현대인의 표상처럼 그려진 무명씨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영화를 주요장면만 검색해서 10분 만에 다 보고, 소설책을 읽을 때는 결말이 궁금해 중간 중간 내용을 건너뛰었다. 또 자신의 미니홈피에 누가 언제 글을 남겼는지 몰라 글이 올라오는 즉시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해 뒀다.

과연 ‘꿈의 초고속 무선통신시대’는 수개월간 짙은 영화를 5.6초간 내려받아 10분 내로 소비하는 시대가 될 것인가.

나날이 치솟는 ‘무언가’의 속도는 때때로 거부감을 부른다. 1843년, 파리에서 전철이 개통된 것을 본 하이네는 ‘철도를 통해 공간은 살해당했다’고 외쳤다. 비행기의 발달은 시차적응이라는 병증을 낳았고, 엘리베이터의 급격한 수직이동은 불쾌한 어지럼증을 만들었다.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

는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부추기고, 인터넷 쇼핑물에서는 눈이 아플 만큼 이미지를 바꿔가며 상품을 광고한다. 더욱이 과속은 교통사고의 원인인, 속도위반은 결혼사유가 되기도 한다.

그래도 빨라야 할 것은 역시 빠를수록 좋다. 빠른 속도가 미덕이 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편리하다는 것은 인정하자. 앞서 예를 들었던 통신과 인터넷은 물론 신호등의 색깔이 바뀌기까지, 음식점에 들어선 뒤 ‘스끼다시’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뿐만 아니라 토익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목표한 목표까지 감량하는 기간 따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빠른 인터넷 속도와 손놀림은 수강신청에 성공할 확률을 급격히 높인다.

요즘처럼 성공을 신봉하는 시대에 대체로

속도는 이를 보장하며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속도 또한 맹신한다. 육상선수들은 결승 테이프에 ‘도착’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도착’하기를 원하며 쾨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가장 빨리 목표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모두들 목표를 수정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한다. 인간을 위해 발달한 속도기술을 누려야만 하지 거기에 쫓겨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너무도 상식적인 이 말은 ‘디지털 조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 앞에 힘을 잃는다. ‘빨리 빨리’를 강요하는 한낱 인간의 발명품 때문에 조급해 하다가는 ‘4세대 이동통신의 속도’로 목표를 벗어나게 될 뿐이다.

아무리 ‘꿈의 초고속 무선통신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우리는 각자가 ‘꿈’꾸던 곳에 자신이 ‘꿈’꾸던 걸음걸이로 갈수 있었으면 한다.

2006학년도 국제교육원 4차 외국어 강좌 안내

- 강의기간 : 2006. 9. 11(월) ~ 10. 27(금)
[휴강기간 : 2006. 10. 2(월) ~ 10. 6(금) / 추석연휴]
- Level Test : 2006. 9. 6(수) 16:00~17:00 / 18:00~19:00
- 접수마감 : 2006. 8. 28(월) 부터 선착순 마감
- 반편성 및 강의실 공지 : 9. 8(금) 20:00 이후
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 원어민 영어 회화 (주 5일반)

강의요일	시 간	단 계					
		입문	1	2	3	4	5
월~금	08:00-08:50 (50분)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월~목	18:00-19:00 (60분)	입문	1	2	3	4	5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원어민 전일교원
교 재		Worldview 2B	Worldview 3A	Worldview 3B	Worldview 4A	Worldview 4B	People like us, too IIE TEXT

※ 일반인 : 140,000원, 재학생 : 120,000원

■ 원어민 영어 회화 (주 3일반)

강의요일	시 간	단 계		
		초급	중급	고급
월 · 수 · 목	19:10-20:30 (80분)	원어민전일교원	원어민전일교원	원어민전일교원
교 재		World Link 1A	World Link 2A	World Link 3A

※ 일반인 : 140,000원, 재학생 : 120,000원

■ 원어민 일본어 회화

강의요일	시 간	단 계			
월~금	08:00-08:50 (50분)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원어민 강사	원어민 강사	원어민 강사	원어민 강사
월~목	18:00-19:00 (60분)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원어민 강사	원어민 강사	원어민 강사	원어민 강사
교 재		다락원 일본어 회화 입문	다락원 일본어 회화 기초	다락원 일본어 회화 중급	다락원 일본어 회화 프리토킹

※ 일반인 : 140,000원, 재학생 : 120,000원

■ 원어민 중국어 회화

강의요일	시 간	단 계			
월~금	08:00~08:50 (50분)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북경대학 대외한어 교육원 교수	북경대학 대외한어 교육원 교수	북경대학 대외한어 교육원 교수	북경대학 대외한어 교육원 교수
월~목	18:00~19:00 (60분)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북경대학 대외한어 교육원 교수	북경대학 대외한어 교육원 교수	북경대학 대외한어 교육원 교수	북경대학 대외한어 교육원 교수
교 재		301구로끝내는 중국어회화 上	301구로끝내는 중국어회화 下	박아한어 1	박아한어 2

※ 일반인 : 140,000원, 재학생 : 120,000원

사설

기숙사 공간, 해결 방안 시급

서울캠퍼스 기숙사에 입학 예정이었던 70명의 학생들이 외부 기숙사로 옮겨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기숙사의 외국인인과 내국인 수용 비율을 맞추기 위한 교육부의 방침으로 인해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한 외부 숙소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기숙사인 ‘생활관’은 신축 당시 정부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정원 432명 중 대학원생 10%를 제외하고 항시 외국인 학생 비율을 50%로 채워야 했다. 하지만 내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간이 부족해 학기 중에는 외국인 25%, 내국인 75%를, 방학 중에는 외국인 100%를 채워 50%의 외국인 학생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교육부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을 학기 중에도 50%로 채우라는 방침을 내리자 내국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외부 기숙사로 옮겨게 된 것이다.

결국 학교 측은 학교에서 보충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70명의 학생을 외부 기숙사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오피스텔 형태의 외부 기숙사를 생활관 입사비와 동일한 가격(6개월 간 1인당 9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숙사의 내국인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던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외부 기숙사에 입사하게 된 한 학생은 “시설은 좋지만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앞으로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얘기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외부 기숙사의 계약기간은 3년이라고 한다. 3년 후에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우정원이나 애지원을 통해 기숙사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서울캠퍼스는 공간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기숙사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제3 기숙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 측은 “학교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3 기숙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학교 밖 외부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제3 기숙사든지 외부 기숙사든지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 더 이상 70명의 학생처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자 사진!

사물함

안 반석님 ~♪

(번호 누르는 사물함 !!)

Key 사물함 딸까요 ㅜㅜ)

011-238-7844

택없이 부족한 프린슬 열람실 사물함. 열람실 게시판에는 항상 사물함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쓴 메모가 빼곡합니다. 열람실 사물함 빨리 돌려주세요~ 박준수 <법학 2006>

독자원을 받습니다

대 / 학 / 주 / 보 / 사

오피니언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열린 생각을 모든 독자와 나눌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외부필자 원고는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대학주보 : http://media.khu.ac.kr ■ 전화 : 02-961-0095(서울편집실) 031-201-3232(수원편집실)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김병목
주간 김병목
부주간 김병목
편집장 김병목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 독 료 / 1년 1만원
구독문의 / 02-961-0093-4
주소정문의 / 02-441-7317(마래기획)

서울캠퍼스
우)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02-961-0093-5, FAX 02-963-5849

수원캠퍼스
우)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현동 1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인터넷 전지메일 master@mediakhu.ac.kr

■ 원어 TOEFL / Native speaker TOEFL

강의요일	시 간	강 사	강의교재 및 구입처
월~금	08:00~08:50 (50분)	원어민 교원	Complete Guide to TOEFL TEST 구입처 : 청운관 B1 서점
월~목	18:00~19:00 (60분)	원어민 교원	
교 재			

※ 일반인 : 120,000원, 재학생 : 100,000원

■ TOEIC / iBT TOEFL

과 목	강의요일	시 간	강의교재 및 구입처
이기한 TOEIC	월~목	07:50-08:50 (60분)	이기한 TOEIC 자체교재 네오르네상스 복사실
	월·수	18:00-20:00 (120분)	
박준호 iBT TOEFL	월~목	07:00-08:00 (60분)	Longman iBT TOEFL 청운관 서점 및 일반서점
박준호 iBT TOEFL	월~목	08:00-09:00 (60분)	

※ 이기한 TOEIC / 박준호 iBT TOEFL 일반인 : 120,000원, 재학생 : 100,000원

- ※ 현재 개설한 강의는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HSK JLPT, 스페인어, 러시아어 강좌를 희망하시는 분이 5명 이상일 경우, 또는 단체 신청시 강좌를 개설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학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